

대전,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초 보급

대전시, 하반기 HEV 13대 전기이륜차 14대 ... 2007년 추가 29대 기대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 하반기 처음으로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13대와 전기이륜차 14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라고 9월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4억3700만원을 확보해 본청에 4대, 동구·대덕구·유성구에 각 1대 등 총 13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우선 보급하고 2007년에 29대를 추가로 보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우선 보급대상을 시와 산하기관, 5개 구를 비롯해 공사·공단 등으로 일단 한정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대당 28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당 가격은 3740만원이다.

대전시는 휘발유 자동차 1대당 연간 유지비가 216만원(월 연료비 18만원)인데 비해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44만원(월 연료비 12만원)으로 적게 들고 대기오염 물질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휘발유차 34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23만원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은 37%, 연비는 40%의 개선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이외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저공해 경유자동차, 전기이륜차 등의 보급과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산화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부착사업과 운행 경유차 LPG 엔진 개조사업도 벌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9/05>